

# 『漢城周報』 소재 한글체 기사의 특질 연구\*

## — 그 한계와 의미

金榮敏\*\*

- |                                   |                          |
|-----------------------------------|--------------------------|
| I. 머리말                            | IV.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의 소멸 |
| II. 근대 신문과 한글 기사의 도입              | V. 마무리: 한계와 의미           |
| III.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의 현황<br>및 특징 |                          |

### ● 국문초록

근대 매체의 한글 사용은 근대문학사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이다. 근대문학사 토대 연구에서 근대매체의 한글 문체 정착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논문은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의 특징과 한계 및 의미를 연구한 것이다. 『한성주보』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거의 주목 받지 못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1886년 창간되어 1888년까지 간행되었던 『한성주보』는 근대 매체 가운데 가장 먼저 한글체 기사를 수록한 신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성주보』 한글체 기사의 게재 현황을 파악한 후, 한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면에서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의 대부분은 외국 자료의 번역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외보 기사와 집록 기사의 비중이 95%에 이른다. 『한성주보』 한글체 기사의 특징을 드러내는 주목할 만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종결어미라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그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 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결과 한글 기사의 대부분은 설명 및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서형 종결어미로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는 외국어 설명 문장의 번역에 주로 활용이 되었던 것이다. 『한성주보』 한글체 기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는 『독립신문』 위주의 띄어쓰기 기원론에 대한 수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성주보』에서 한글은 타인을 위한 번역의 도구일 뿐 글 쓰는 이 자신을 위한 의사 표현의 도구가 아니었다. 『한성주보』의 한글 기사들은 일본어와 중국어가 먼저 한문으로 번역된 후 다시 한글로 표기되는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성주보』의 독자는 그 전신이었던 순한문 신문 『한성순보』의 독자와 큰 차이가 없다. 그 점에서 보면, 『한성주보』의 독자들은 한문 기사의 한글 번역을 필요로 하는 독자들이 아니었다. 『한성주보』에서 한글 기사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용도가 불분명했다는 점에 있다.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가 시도한 빈칸 띄어쓰기는 근대 국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선구적 의미에 비하면 실질적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는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사실은, 이를 통해 당시대 지식인들이 최초로 공적 영역에서 한글을 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는, 근대 초기 개화파의 국한문혼용체 신문 발행의 소망을 실현했다는 점 등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 정착 실패의 경험은 근대 매체의 문체 선택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독자층의 성격이라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문체에 맞는 기사 영역의 개척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일깨워 주었다.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의 정착 실패 경험은 이후 발간된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등 근대 신문의 문체 선택 과정에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작용했다.

**주제어 :** 한성주보, 근대 신문, 한글 기사, 문체, 번역, 띄어쓰기

## I. 머리말

한국 근대문학사의 출발 시기에 대한 논의는 대략 19세기 후반 무렵으로 수렴된다. 이 시기 이후 문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실명을 사용한 전문적이며 상업적인 작가들이 출현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sup>1)</sup> 그 중 주목을 끄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근대 매체를 통한 한글 문장의 사용과 정착이다. 근대 매체의 한글 사용은 근대문학사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이다. 한글 문체의 정착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근대 문체의 정착 과정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들이 연이어 산출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결과이다.<sup>2)</sup> 이러한 학계의 연구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주목 받지 못한 채 남아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한성주보』이다.<sup>3)</sup> 『한성주보』는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를 이어받아 정부 기구인 통리아문박문국에서 발행했다. 1886년 창간되어 1888년까지 간행되었던 『한성주보』는 근대 매체 가운데 가장 먼저 한글체 기사를 수록한 신문이다.

그러나, 『한성주보』에서 한글체 기사의 존속 기간은 길지 않았다. 『한성주보』에서 한글체 기사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한글 사용이 ‘시기상조’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학계에 제시된 바 있다.<sup>4)</sup> 하지만

- 
- 1) 이와 관련된 논의는 김영민, 「한국문학사의 근대와 근대성」, 『20세기 한국문학의 반성과 쟁점』, 소명출판, 1999, 11~34면 참조.
  - 2) 근대 한국어문장의 정착 과정과 관련된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연구 업적들로는 다음의 저술이 있다. 안예리, 『근대 한국어의 변이와 변화』, 소명출판, 2019; 임상석, 『식민지 한자권과 한국의 문자 교체-국한문 독본과 총독부 조선어급한문독본 비교 연구』, 소명출판, 2018; 최경봉,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2016; 김병문, 『언어적 근대의 기획-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2013; 미쓰이 다카시, 『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조선어 규범의 문제화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임형택 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송철의 외,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이병근 외,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3) 특히 『한성주보』의 문체 및 표기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관해 가장 상세히 언급한 것은 정진석이 쓴 다음의 해제 자료이다. 「해제: 최초의 근대 신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한성순보, 한성주보 번역판』,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3, 2~8면. 그 외 『한성주보』의 문체를 직접 다룬 논문으로는 다음의 글이 있다. 허재영, 「근대계몽기의 어문정책(1)-개화기 『한성순보(주보)』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4, 한민족문화학회, 2004, 55~81면.

‘시기상조’란 언제나 결과만을 염두에 둔 해석일 뿐, 원인이나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만으로는, 어렵게 출현한 한글 기사가 왜 그렇게 빨리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한성주보』의 한글 사용이 단명에 그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한성주보』 한글체 기사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점검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단명의 이유를 구명하는데 있다. 논의의 순서로는 먼저 근대 신문의 한글체 기사 도입 과정을 정리한 후 이어서 『한성주보』 한글체 기사의 게재 현황을 파악해 나갈 것이다. 『한성주보』에서 한글이 어떠한 지면에서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 보려는 것이다. 이어서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한계와 의미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 II. 근대 신문과 한글 기사의 도입

국내에서 발간된 근대 신문 가운데 기사에 한글을 가장 먼저 사용한 매체는 『조선신보』이다. 『조선신보』는 1880년대 초반 일본인이 발행하던 신문 가운데 하나였다.<sup>5)</sup> 『조선신보』는 한글로 본문을 적고 그 상단에 漢字를 병기한 이른바 付屬漢文體 문장을 사용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近來朝鮮頑固黨勢力日本和親約條拒絕  
 근릭조선완고당은다시세력을어더압셔일본과화친호던약도를거절홀만긋치  
 大端擾亂模樣速히큰사함을시작호면더러혀기화도호  
 못흔다호고대단히요란홀모양이나출아리속히큰사함을시작호면더러혀기화도호

- 4) “주보의 한글 사용 의지는 시대 상황보다 한 걸음 빨랐고, 한글 대중화는 시기 상조였던 셈이다.” 차배근·오진환·정진석·이광재·임준수·신인섭, 『우리신문 100년』, 현암사, 2001, 27면.
- 5) 『조선신보』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일본인들의 집합체인 釜山港商法會議所가 1881년 12월 10일 창간한 신문이다. 이 신문은 열흘에 한 번 발행되었고, 주된 독자는 조선에 머물던 일본인이었다. 이 신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 관련 기사였지만, 조선의 인물 동정 및 풍속에 관한 기사도 수록했다. 「조선임경업전」을 일본어로 번역 연재한 바도 있다.

兩國交誼 厚 牛 雙  
고조랑국교의도네날보담후히될가싱각호노라<sup>6)</sup>

그러나, 『조선신보』의 한글 표기는 그 출현 빈도수가 극히 적어 의미 있는 표본이 되기 어렵다. 다만, 이를 통해 『조선신보』가 한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부속한문체 문장을 한글 문장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조선인이 발행한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는 純漢文體를 기본으로 했고 한글 기사는 전혀 게재하지 않았다.<sup>7)</sup> 근대 신문이 본격적으로 한글 기사를 수록하기 시작한 것은 『한성주보』부터이다. 『한성주보』는 1886년 1월 25일에 창간된 후 1888년까지 발행되었다.<sup>8)</sup> 『한성주보』의 발간 주기는 일주일을 기본으로 했으나 이를 엄격히 지키지는 않았다. 『한성주보』 창간호의 지면 구성은 周報序, 內國記事, 私議 그리고 外報 및 本局公告로 이루어졌다.<sup>9)</sup> 신문 발행의 필요성을 다룬 글 「論新聞紙之益」에는 『한성주보』의 발행 목적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原夫新聞紙之義所以勤求民隱而去其隔閡凡驚利國便民之方罔不登聞而治臻於上理也 …… 現今泰西各國有見於斯創設報館名新聞紙不啻勤求我民之隱而兼訪宇內情形聞之以天下之耳思之以天下之心一人之善惡一事之得失萬邦共記注萬邦共勸懲著爲演說斷之公論備供君相之採擇亦資議院之取裁以應天下之變以成天下之務故內而修禦之力經制之義市糶之令貨幣之制山澤之利征榷之課權量之謹工作之用郵傳之置道涂之備

6) 『朝鮮新報』 제7호, 1882.3.25.

7) 『한성순보』는 1883년 10월 31일에 창간되었다. 『한성순보』는 다른 대부분의 신문들처럼 판수에 따라 기사 내용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한 『한성순보』·『한성주보』는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에서 제작 배포한 영인본이다. 이 영인본의 토대가 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한성순보』·『한성주보』의 서지와 관련된 더 상세한 정리는 정진석, 「해제: 최초의 근대 신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한성순보, 한성주보 번역판』,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3, 2~8면 참조.

8) 『한성주보』가 언제 폐간되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는 1888년 3월 12일자 106호가 마지막이다. 이후 대략 120호 정도까지는 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다. 정진석, 「해제: 최초의 근대 신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3면 참조.

9) 『한성순보』의 各國近事를 『한성주보』에서는 外報로 명칭을 바꾸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凡有關於國計者不辭若口縷陳不憚逆耳忠告期於實施而俾無因循苟且之弊外而各國政教之隆替風俗之好歹天時之寒暖地利之沃瘠幅圓之廣狹山川之險夷人民之衆寡兵丁之勇怯與夫商務之輸贏物產之豐儉機器之巧拙格致之端倪可以增人智覺策國富強者靡不遍訪而詳誌不惟貢諸秉軸之裁擇而猶恐一夫一婦之不聞不知<sup>10)</sup>

원래 신문의 의의는 국민들의 고통을 애써 찾고 막힌 것을 제거함은 물론이고, 국가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모든 방법을 다 게재하여 정치가 上理에 도달하게 하는 데 있다. …… 지금 서양 각국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신문사를 창설하고 신문을 간행하고 있는데, 이는 백성의 고통을 힘써 찾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세계 각국의 情形을 탐방하여 天下사람의 귀에 들려주고 天下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선악과 한 가지 일의 득실이라도 만방이 함께 기록하고 만방이 함께 勸懲하게 하기 위해서 연설로 드러내고 公論으로 단정하여, 임금과 재상의 채택에 제공하고 議院의 取裁에 도움을 줌으로써 천하의 변화에 응하고 천하의 일을 달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안으로는 국방의 힘, 經制의 의의, 시장의 제도, 화폐제도, 山澤의 이익, 조세의 사무, 權量의 신중성, 工作의 용도, 역참의 위치, 도로의 정비 등 모두 국가 계획에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은 바른 말로 정밀하게 전달함을 不辭하고 귀에 거슬리는 충고도 꺼리지 않으면서 기필코 실시하게 함으로써 그럭저럭 구차스럽게 하려는 폐단을 없애게 한다. 밖으로는 각국의 政教에 관한 隆替, 풍속의 好惡, 기후의 寒暖, 土地의 沃瘠, 국토면적의 廣狹, 山川의 險夷, 人民의 衆寡, 군인의 勇怯 등과 商務의 수치, 산물의 豐儉, 기계의 巧拙, 格致의 端倪 등 사람의 지각을 늘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계책이면 모두 探訪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없다. 요직에 있는 자들의 채택에만 제공할 뿐이 아니라, 一夫一婦라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 염려한다.<sup>11)</sup>

「논신문지지의」에서 말하는 신문 발행의 의의는, 백성들의 고통을 찾아 밝히고 나라를 이롭게 하며 백성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정치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신문은 자기나라 백성의 고통을 알리는 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세를 탐방해 알리는 역할도 한다. 선악과 득실을 만방이 함께 기록하고 만방이 함께 勸懲하

10) 「論新聞紙之益」, 『한성주보』, 1886.9.27.

11) 「논신문지지의」, 『한성주보 번역판』, 1886.9.27.

기 위해 연설과 公論의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성주보』가 국내외의 중요한 일들을 전달하면서 “요직에 있는 자들의 채택에만 제공할 뿐이 아니라, 一夫一婦라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 염려한다.”는 점을 부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성주보』의 ‘一夫一婦’에 대한 관심은 이 신문의 기사 내용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표기문자를 통해서도 구현된다. 『한성주보』에서 국한문혼용체와 순한글체 기사의 사용은 이와 관련이 있다. 『한성주보』는 『한성순보』에 비해 몇 가지 점에서 발전된 기능과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한글기사가 들어간 것은 더 많은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한글을 공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역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리되기도 한다.<sup>12)</sup>

『한성주보』는 순한문체, 국한문체 그리고 순한글체 기사를 모두 수록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출현 빈도수가 높은 것은 순한문체 기사였다. 문자별 기사 건수 통계를 보면 『한성주보』의 전체 기사 중 한문 기사가 1176건, 국한문혼용 기사가 44건, 한글 기사가 40건이다.<sup>13)</sup> 다만, 한글 기사의 경우 길이가 긴 편이어서 그 분량이 접하는 비율은 건수가 접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창간호의 경우 기사 건수만 본다면 한문 : 국한문 : 한글의 비율은 31 : 12 : 2이다. 하지만, 기사 분량으로 본다면 이는 대략 7 : 5 : 3 정도가 된다. 한글 기사는 제1호부터 24호 사이에 38건이 집중적으로 실렸고, 이후 31호와 32호에 1건씩 추가로 수록되었다. 국한문혼용 기사도 1호와 2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후 22호부터 28호 사이에 일부가 게재되었다. 『한성주보』의 순한글 및 국한문혼용체 기사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게재되었고 창간 이후 1년 정도가 경과하면 모두 사라지고 만다.

### Ⅲ.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의 현황 및 특징

#### 1. 한글체 기사의 현황

『한성주보』에 게재된 순한글체 기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2건, 제2호 7건,

12)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2, 49면 참조.

13) 정진석, 앞의 1992 책, 67면.

제3호 4건, 제4호 7건, 제5호 4건, 제6호 2건, 제17호 3건, 제18호 2건, 제22호 3건, 제23호 3건, 제24호 1건, 제31호 및 32호 각 1건. 이는 현재 발굴된 호수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신문이 추가 발굴되더라도 초기 발간 호수에 한글체 기사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4)</sup> 이들 순한글체 기사의 수록 호수와 제목, 그리고 기사 내용과 게재란을 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 일람

| 호수  | 기사제목                           | 기사내용      | 게재란  |
|-----|--------------------------------|-----------|------|
| 제1호 | 인군에은혜가빅성을감격케함이라                | 외국역사 및 근황 | 외보   |
| 제1호 | 늑주충논                           | 세계지리      | 집록   |
| 제2호 | 르메리가싸와리아와셔로합함이라                | 외국역사 및 근황 | 외보   |
| 제2호 | 썰마인군이장춘인스리스스름의청하<br>는바를허락하려함이라 | 외국역사 및 근황 | 외보   |
| 제2호 | 썰마인군이인스리스스름의갓친빅되<br>미라         | 외국역사 및 근황 | 외보   |
| 제2호 | 세르의와싸와리아기흔함이라                  | 외국역사 및 근황 | 외보   |
| 제2호 | 썰마가구원을중국에청함이라                  | 외국역사 및 근황 | 외보   |
| 제2호 | 세야만학스를통계함이라                    | 각국학사통계    | 외보   |
| 제2호 | 예시아디락                          | 세계지리 및 역사 | 집록   |
| 제3호 | 즈긱석류황회를식로설현허시라                 | 회사설립      | 국내기사 |
| 제3호 | 외국롱스를시험하느거시라                   | 농사와 축산 실험 | 국내기사 |
| 제3호 | 로시아황데가장춧중앙예시아황데을칭<br>하랴함이라     | 외국역사 및 근황 | 외보   |
| 제3호 | 예시아디락                          | 세계지리 및 역사 | 집록   |
| 제4호 | 인스리스근신                         | 외국근황      | 외보   |

14) 제7호부터 제16호 사이 그리고 제19호부터 제21호 사이에 한글체 기사가 없는 것은 이들 호수가 미발굴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는 신문 판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글체 기사를 발견할 수 없다. 제25호의 경우는 신문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발굴 영인된 상태이다. 제26호 이후는 완전한 판본으로 존재한다.

|      |                      |           |    |
|------|----------------------|-----------|----|
| 제4호  | 예지브도국난               | 외국근황      | 외보 |
| 제4호  | 중국근신                 | 외국근황      | 외보 |
| 제4호  | 세야만이사모이도를웅거함이라       | 외국근황      | 외보 |
| 제4호  | 이다리아가맛소와를병탄함이라       | 외국역사 및 근황 | 외보 |
| 제4호  | 썰마근신                 | 외국역사 및 근황 | 외보 |
| 제4호  | 유로부디락                | 세계지리 및 역사 | 집녹 |
| 제5호  | 썰마 왕이 인도 로잡퍼가미라      | 외국역사 및 근황 | 외보 |
| 제5호  | 인스리스칭경               | 외국근황      | 외보 |
| 제5호  | 혼인홀00홀정홈이라           | 외국풍속      | 외보 |
| 제5호  | 유로부디락                | 세계지리 및 역사 | 집녹 |
| 제6호  | 아멘 빅성이작난홈이라          | 외국근황      | 외보 |
| 제6호  | 아호리가디락               | 세계지리 및 역사 | 집녹 |
| 제17호 | 썰마근리소문이라             | 외국근황      | 외보 |
| 제17호 | 파서국황제가나가늘여호는소문이라     | 외국근황      | 외보 |
| 제17호 | 이디리아디락               | 세계지리 및 역사 | 집녹 |
| 제18호 | 나버레온황제가동으로올미라        | 외국근황      | 외보 |
| 제18호 | 이디리아디락속고             | 세계지리 및 역사 | 집녹 |
| 제22호 | 동국과노시아에무역함이라         | 외국근황      | 외보 |
| 제22호 | 턴문학                  | 천문학       | 집녹 |
| 제22호 | 스베인사람다르미아가아다란짓그를차진속고 | 세계지리 및 역사 | 집녹 |
| 제23호 | 붓쳐위함다독은저일빅늑십인이라      | 외국근황      | 외보 |
| 제23호 | 딕판옥사라                | 외국근황      | 외보 |
| 제23호 | 유성이운전함는거시라           | 천문학       | 집녹 |
| 제24호 | 쑤이드나리군수의부비리          | 외국근황      | 외보 |
| 제31호 | 요동티슈를기록이라            | 외국근황      | 외보 |
| 제32호 | 면전의석탄이나다             | 외국근황      | 외보 |

『한성주보』의 지면은 「國內記事」, 「私報」, 「外報」, 「私議」, 「集錄」 및 「公告」와 「廣告」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제에 따르면 전체 기사 가운데 외보가 4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내기사 42.8%, 집록 5%, 공고 및 광고 4%, 사의 1.75%, 사보 0.75%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5)</sup>

위의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글체 기사의 분포 현황은 외보 기사 27편, 집록 기사 11편 그리고 국내 기사가 2편이다. 외보 기사는 외국의 역사와 근황 및 풍속 등의 내용을 다룬다. 집록 기사는 세계지리 및 역사와 천문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외보 기사가 시사성이 짙다면 집록 기사는 교양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외보 기사와 집록 기사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외국 자료를 원전으로 한 번역물이라는 점이다.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 40편 가운데 외보 기사와 집록 기사를 합치면 그 분량이 95%에 이른다. 결국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의 대부분은 외국 자료의 번역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한글체 기사의 종결어미

종결어미는 기능상 문장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글 쓰는 이의 서술 태도를 드러내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서는 『한성주보』 한글체 기사의 특징을 드러내는 주목할 만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종결어미라고 보고 이들에 대해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성주보』의 모든 한글체 기사의 마무리 문장에 사용된 어미를 정리해 그 기능을 살폈다. 단, 전체를 인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문장 후반부만을 인용하였고, 각 예문 앞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이 고유번호는 위 <표 1>의 기사 순서와 일치한다.

①이는십월이일일본록아도신보에기직흔비라(제1호, 13면, 외보)

②또전글에약조흔모든나라이란말은지금우리나라와조약하야셔로무역을통하  
고그나라사신이우리경성의와머무르기로이가치괴록하니보는스름은자셔히살피  
라(제1호, 16면, 집록)

③그결말은아지못하여후보를기다려다시괴록하려하노라(제2호, 8면, 외보)

④금십월이십칠일일본보지신문에일너시쇠셀마가능히쓰인리스[인쓰리스]를

15) 정진석, 「해제: 최초의 근대 신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한성순보, 한성주보 번역판』,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3, 7면 참조.

익일슈업는 고로그인군세보우가장찰인쓰리스스람의청호난바를허락한다호더라  
(제2호, 8면, 외보)

⑤일후쳐지는아즉아시못호여후쇼식을기다려기록호려호노라(제2호, 8면, 외보)

⑥이는십월구일인그리스서울전신을번역호빅라(제2호, 8면, 외보)

⑦구원을청호여더니중국이질게아이호여마춤내썰마로호여곰인쓰리스군스의  
게크게픽호빅되야짜호더라(제2호, 10면, 외보)

⑧전국학스를통계호면일만죽천구빅죽십구인이니이는일본통계잡지에기록호  
빅라(제2호, 11면, 외보)

⑨또그사이멀니바다가온딤드러가니일흠은마랏가라인쓰리스가이에부두를설  
호니또호변화호사이되얏썰라(제2호, 18면, 집녹)

⑩이거시엿지장스홍황호는일단안니리요(제3호, 3면, 국내기사)

⑪미국우마는아국우마에비계보면몸이크고심이강호니이것도또호우리나라에  
유익현일이너라(제3호, 3면, 국내기사)

⑫불이라하는거슨양은전으로일원이란말이라(제3호, 10면, 외보)

⑬이밭게놓흔산과큰하슈는맞쳐다기록지못호노라(제3호, 16면, 집녹)

⑭도한길을인소와샤므의사이로놓는거시더욱오날날급한심쓰미되리라호더라  
(제4호, 5면, 외보)

⑮근일신문의일넛스되반적이또그싸쑥고라라호는고을의이러나그형세가심히  
성호다호더라(제4호, 6면, 외보)

⑯이는상히그리레르신문의이르미라(제4호, 6면, 외보)

⑰근일에세야만정부가이씨을웅거호야빠부친싸을습엇다호더라(제4호, 6면,  
외보)

⑱가만이이다리아를도와맛소와로써이다리아의붓친싸을민드니일로써각국이  
셔로닷돈다호더라(제4호, 6면, 외보)

⑲이른바르썰라호는거슨썰마의돈일흠이라이은다일본시사신보의일으미라  
(제4호, 8면, 외보)

⑳(건련에제국을일통호여나라형세가부성호더라)나머지는후호의기록호랴호  
노라(제4호, 15면, 집녹)

㉑만일 인쓰리스 군스가적경의이르면토멸호가기가어렵지안타호더라(제5호, 8  
면, 외보)

㉒황후의무강호수가또호장춧전황으로비기리로다(제5호, 8면, 외보)

㉓수는녹아도신문에기록호빅라(제5호, 9면, 외보)

㉔시무에쁜지잇는 스름이이를보고미승흔거시잇거던한문으로번넉흔나라일흠  
을보리로다(제5호, 15면, 집녹)

㉕이른바쥬인과손이서로산양흔믹정히사슴이늬손의잡힐는지물은다흔니이를  
일음이로다(제6호, 5면, 외보)

㉖모삼쎄그 의사이에잇스니장이일천팔빅영리로디이붓 쓴자세이괴록지못흔  
노라(제6호, 15면, 집녹)

㉗쎄마 브리를쳐흔여디방에서크게박와 쎄마 스름스십명을죽엿다흔더라(제  
17호, 9면, 외보)

㉘과연소문과갓틀진디파서국황제풍치를사모흔여모와구경코져흔스름이극  
히만흔리로다(제17호, 9면, 외보)

㉙십슈넬식에학교와싱도의슈효가일빅나더흔니그나라이교회의속함을알너라  
(제17호, 15면, 집녹)

㉚일본황제황후를니아가뵈오고이나라에능혀지무릇흔달이라장츄턴흔각국을  
순유현다흔더라(제18호, 8면, 외보)

㉛이다리야 왕유다리아익풍축이제이가득고그 바를안빅스 제일이인군된후  
로국세가날마다성현다흔더라(제8호, 15면, 집녹)

㉜이는 일본신문에잇는말이라(제22호, 8면, 외보)

㉝그러흔즉틱양세계에유성중에큰것시여닭이요그가장틱양에서먼자는히왕성  
일너라(제22호, 13면, 집녹)

㉞이는 아메리가 디락에인는말이다(제22호, 14면, 집녹)

㉟붓쳐위흔무리가길에서이어서직를올일식흔큰다리에이르러다리가문어져  
물에빠져죽은직일빅늑십여인이된다흔더라(제23호, 7면, 외보)

㊱이는 사월십오일디판통신에잇는말이라(제23호, 7면, 외보)

㊲이흔는요다음호에속등흔랴흔노라(제23호, 14면, 집녹)

㊳마아그는 쏘이드돈이니金錢二角五分이되논이라(제24호, 12면, 외보)

㊴영구스람들이듯고불상이여겨빅스십척에양식을깃고다시상류로올나표류현  
스름구원흔여진흠흔니즌실노적덕흔기조와흔미더라(제31호, 7면, 외보)

㊵쏘광원이심히길고커서취지무궁흔고용지불길흠형세가잇다흔니면전스름이  
능히취취흔면빠부즈를일우게도다(제32호, 11면, 외보)

이 문장들에서 종결어미만을 추려내 그 수록란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란 형태소 자체가 지닌 기능이라기보다는 문맥상 어미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는 문장 전체를 읽고 문맥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장이 지닌 의미가 단순한 편이어서 그 편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① -라(외보, 설명) ② -라(집녹, 명령) ③ -노라(외보, 선언) ④ -더라(외보, 전달)  
 ⑤ -노라(외보, 선언) ⑥ -라(외보, 설명) ⑦ -더라(외보, 전달) ⑧ -라(외보, 설명)  
 ⑨ -씨라(집녹, 설명) ⑩ -리요(국내기사, 강조) ⑪ -너라(국내기사, 설명) ⑫ -라(외보, 설명)  
 ⑬ -노라(집녹, 설명) ⑭ -더라(외보, 전달) ⑮ -더라(외보, 전달) ⑯ -라(외보, 설명)  
 ⑰ -더라(외보, 전달) ⑱ -더라(외보, 전달) ⑲ -라(외보, 설명) ⑳ -노라(집녹, 선언)  
 ㉑ -더라(외보, 전달) ㉒ -로다(외보, 설명) ㉓ -라(외보, 설명) ㉔ -로다(집녹, 설명)  
 ㉕ -로다(외보, 설명) ㉖ -노라(집녹, 설명) ㉗ -더라(외보, 전달) ㉘ -로다(외보, 추정)  
 ㉙ -너라(집녹, 설명) ㉚ -더라(외보, 전달) ㉛ -더라(집녹, 전달) ㉜ -라(외보, 설명)  
 ㉝ -르너라(집녹, 설명) ㉞ -다(집녹, 설명) ㉟ -더라(외보, 전달) ㊱ -라(외보, 설명)  
 ㊲ -노라(집녹, 선언) ㊳ -라(외보, 설명) ㊴ -더라(외보, 설명) ㊵ -도다(외보, 설명)

『한성주보』 한글 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종결어미는 ‘-더라’와 ‘-라’이다. 먼저 ‘-더라’는 총 12회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 10회 즉 ④ ⑦ ⑭ ⑮ ⑰ ⑱ ㉑ ㉗ ㉛ ㉟의 경우는 외보란에서 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㉚의 경우 역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집녹란 기사에 사용되었다. ‘-라’는 모두 11회가 사용되었는데 이들 중 10회 즉 ① ⑥ ⑧ ⑫ ⑯ ⑲ ㉓ ㉜ ㉝ ㉞의 경우는 외보란 기사에서 설명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밖에 설명을 목적으로 사용된 종결어미는 ⑨ -씨라 ⑬ -노라 ㉒ -로다 ㉔ -로다 ㉕ -로다 ㉖ -노라 ㉙ -너라 ㉛ -르너라 ㉞ -다 ㊱ -도다 등이 더 있다. 예문 ③ ⑤ ㉗ ㉟의 경우 ‘-노라’의 기능을 ‘선언’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도 어미 ‘-노라’에 적극적인 의지 표출의 기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장들에서 어미 ‘-노라’는 실질적으로는 대표적 평서형 종결어미인 ‘-다’와 기능상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단순 설명의 기능을 하는 어미로 분류된 ⑬ -노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중 예문 ㉒ ㉔ ㉕을 비교해 살펴는 일은 흥미롭다. 이들 세 문장은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는 문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문 ㉔의 경우는 구절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 예문 ㉔는 다른 두 문장과 달리 종결어미를 ‘-라’ 대신 ‘-다’로 쓰고 있다. ‘-더라’와 ‘-라’ 등은 실제 기능으로 보면 으로는 사실 전달 혹은 사실 서술의 평서형

종결어미라는 공통성이 있다. 이들은 ‘-더라’ ‘-라’ 외에도 ‘-씨라’ ‘-노라’ ‘-로다’ ‘-노라’ ‘-너라’ ‘-르너라’ 등 외형상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가 ‘㉔ -다’의 예스러운 표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면 제약으로 인해 이 논문에서 직접 인용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기사 중간에 나오는 문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마지막 문장의 경우보다 설명과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평서형 종결어미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들 문장의 대부분이 평서형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뿐만 아니라 전체 문장을 분석하면 설명과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평서형 종결어미의 사용 빈도수는 월등히 더 높아진다.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의 대부분은 설명 및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서형 종결어미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앞 장에서 정리한 내용과 연결 지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는 설명문 위주의 외국어 문장을 번역 전달하는 일에 주로 활용되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3. 한글체 기사의 띄어쓰기

근대 한글의 띄어쓰기는 한문은 물론 근대 이전의 한글 사용법과도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근대 초기 문헌의 빈칸 띄어쓰기는 로스(Ross)의 『Corean Primer』(1877)와 스코트의 『언문말책』(1877) 등 외국인이 지은 문법서에서 국문과 영문을 대비하면서 출현한 것으로 정리된다.<sup>16)</sup> 즉 국문과 그에 대응하는 영문을 같이 배열하는 과정에서 빈칸 띄어쓰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빈칸 띄어쓰기가 우리나라 사람이 관련된 문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독립신문』에 와서의 일이

16) 띄어쓰기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리가 있다. “19세기에는 고리점, 즉 권점 띄어쓰기와 빈칸 띄어쓰기가 띄어쓰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권점 띄어쓰기는 『獨立誓告文』(1894), 『新訂尋常小學』(1896), 『국문정리』(1897, 이봉운) 등에서, 빈칸 띄어쓰기는 로스(J. Ross)의 『Corean Primer』(1877), 영국 공사관의 스코트(J. Scott)가 쓴 『언문말책』(1887)과 언더우드(H.G. Underwood)의 『韓英文法』(1890)을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의 책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이기문 1996, 서종학 1996)” 양명희, 「띄어쓰기 변천을 통해 본 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013, 199면. 한편, 『독립신문』보다 앞선 띄어쓰기의 예로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와 남긴 기록인 「使和記略」(1882)을 들기도 한다. 이 글에서 국한문혼용체의 일부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박영효의 띄어쓰기는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렀으나 『독립신문』의 띄어쓰기는 대중적 확산을 보였다는 점이 다르다. 민현식, 『국어정서법 연구』, 태학사, 2004, 170면 참조.

라는 것이 지금까지 통설이다. 정승철은 근대 초기의 띄어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독립신문』의 띄어쓰기는, 영문 띄어쓰기에 익숙했던 서재필(徐載弼)이 한글 운용에 관한 나름대로의 의식을 실현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 빈칸 띄어쓰기를 충실히 따른 것은 『조선크리스토회보』(1897), 『협성회회보』(1898), 『매일신문』(1898), 『신약전서』(1900) 등과 같은 기독교 인사들이 관여한 성경과 신문들이었다. 이처럼 띄어쓰기는, 개화기초기에는 사용자 층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곧 일반인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대한매일신보』가 초기에는 붙여쓰기를 하다가 후기에 띄어쓰기를 한 것은 띄어쓰기의 영향이 일반인에게도 미쳤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인직(李人植)의 「혈의루」(1906)나 이해조(李海朝)의 「자유종」(1910) 등 신소설에서 띄어쓰기를 사용하였고, 붙여쓰기가 일반적이었던 교과서에도 「초목필지」(1903)나 「여자독본」(1908) 등과 같은 초급자를 위한 교과서에서는 띄어쓰기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 빈칸 띄어쓰기는 크게, 어절(語節)을 단위로 하는 어절형과 구(句)를 단위로 하는 구형 둘로 나눌 수 있다(주시경은, 어절보다 작은 형태소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 띄어쓰기도 하였으며 신소설이나 교과서에서는 두 개 이상의 구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띄어쓰기도 하였다). 어절형은 현대국어의 띄어쓰기와 거의 마찬가지로 조사만을 선행 체언에 붙여 쓰는 방식을 가리키며 구형은 의존명사와 선행어, 보조용언과 본용언, 수식어와 피수식어 등을 하나로 묶어 붙여 쓰는 방식을 가리킨다(물론 이는 대체적인 경향만을 이야기한 것이며 어느 경우나 예외 없이 동일한 형태를 항상 붙여쓰거나 항상 띄어썼던 것은 아니다). 『신약성서』 등의 번역 성경류는 어절형의 띄어쓰기를 보여 주며 『독립신문』은 구형의 띄어쓰기를 보여준다.<sup>17)</sup>

구형 띄어쓰기를 하는 『독립신문』에서는 격조사뿐만 아니라 ‘-긔치(같이), -긔지(까지)’ 등의 특수 조사, ‘것, 이(者), 자(者)’ 등의 형식 명사나 ‘명, 장’ 등의 단위 명사, ‘이(此)’ 등의 관형사, ‘가-(去), ㅎ-(爲)’ 등의 보조용언도 대체로 붙여쓰는 경향을 보여준다. 정승철은 계속해서, 이 시기의 띄어쓰기가 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주시경이 대체로 국한문체 문장에서는 띄어쓰기

17) 정승철, 「개화기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국립국어연구원, 1999, 27~28면.

를 하지 않았으며 한글체 문장에서는 권점 또는 빈칸을 이용한 띄어쓰기를 했다는 것이다. 『황성신문』이 국한문체 기사인 사설, 논설 등은 붙여쓰기를 했지만, 사회면 기사에서는 한글체를 쓰면서 띄어쓰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빈칸 띄어쓰기는 1920년대부터 확산되고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에서 이를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정착된다.<sup>18)</sup>

그런데, 『한성주보』의 기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신문의 편집자가 분명히 띄어쓰기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독립신문』의 경우처럼 일관된 것은 아니었지만, 앞 시기 문헌들에 비하면 띄어쓰기에서 명백히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준다.<sup>19)</sup>

『한성주보』의 모든 기사에는 제목과 본문 사이에 여백이 존재한다. 제목과 본문 사이에 띄어쓰기를 한 셈이다. 이는 한글체 기사뿐만 아니라 국한문체 및 순한문체 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사 제목과 본문 사이의 띄어쓰기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두세 글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보다 간격이 넓거나 아예 행을 바꾸어 본문을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성주보』의 본문 기사에서는 드물기는 하나, 문장 및 구절 그리고 어절 띄어쓰기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다. 먼저 국한문체 기사의 사례이다.

집녹

늑주충논부록

이충논중에잇는늑주충명을한문으로번역하면 예시아는亞細亞요아흐리가는亞非利加요

남아메리가는南亞米利加요 북아메리가는 北亞米利加요 예시아니야는大洋洲요또바다일흙은바시헛그는太平洋이요 아다란짓그는大西洋이요 인찌안은印度洋이요 북아그짓그는北冰洋이요

남아그짓그는南冰洋이요또나라일흙은중국은中國이요 일본은日本이요 인썬리스는英吉利요 세야만은日耳曼이요 로시아는俄羅斯요 이다리아는伊太利요

18) 정승철, 앞의 1999 글, 31면 참조.

19) 김영민,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12, 195면에서는 『한성주보』의 띄어쓰기를 ‘어절들 사이의 공간을 안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해석을 여기서 바로 잡는다.

유나이텨되스데도는美利堅이라”<sup>20)</sup>

이 기사에서는 구절 띄어쓰기와 어절 띄어쓰기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남아메리가는南亞米利加요 북아메리가는 北亞米利加요”와 같은 문장의 경우는, ‘남아메리가는南亞米利加요’를 구절 띄어쓰기의 사례로 ‘북아메리가는 北亞米利加요’를 어절 띄어쓰기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음 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르메리는羅馬里이요 싸와리는佰布里이요 도르기는土耳其요 유로부는歐羅巴요 아흐리가는亞非利加요 세르의는 塞爾維요 켈마는緬甸이요<sup>21)</sup>

여기에서는 ‘르메리는羅馬里이요’, ‘싸와리는佰布里이요’, ‘도르기는土耳其요’, ‘유로부는歐羅巴요’, ‘아흐리가는亞非利加요’, ‘켈마는緬甸이요’가 구절 띄어쓰기의 사례이고, ‘세르의는 塞爾維요’가 어절 띄어쓰기의 사례가 된다. 다음은 한글체 기사이다.

로시야는이빅영팔만팔천사빅일십구요 세야만은이십일만오천영구십일이요  
오우스도리야는이십사만영구빅사십이요 흐란스는이십영만사천영구이십이요  
인쓰리스는일십이만영팔빅칠십구요 이다리야는일십일만사천이빅구십육이요  
스베인은일십팔만이천칠빅오십이요 보스츠왈은십만육천오빅일십이요 도르기는육만십천팔빅오십이요  
쎄르츠무는일만일천십빅칠십십이요 텐말그우는일만십천칠빅팔십사요 끼리이기는이만오천영사십일이요  
호르란또는일만이천육빅칠십팔이요 세르의야는일만영팔빅오십이요 스이텐은이십구만사천팔빅사십팔이요  
또각국스름의수효를과육호노니 .....<sup>22)</sup>

이 기사에서는 나열형 어미 ‘-요’ 혹은 ‘-이요’로 끝나는 구절들을 모두 띄어 썼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비교적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23)</sup>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20) 「늑주충논부록」, 『한성주보』, 1886.2.1.

21) 『한성주보』 제2호, 1886.2.1.

22) 『한성주보』 제4호, 1886.2.22.

23) 「유로부디약」(제5호, 13면) 등의 기사가 그러한 예가 된다.

다음 문장이 나올 때 한 칸 띄어쓰기 혹은 행 바꿈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다음 예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그결말은아지못호여후보를기다려다시괴록호려호노라  
 썰마인군이장친인스리스스름의청호는바를허락호여호미라 전글에임의인스  
 리스군스가썰마치는일을괴록호여더니금십월이십칠일일본보지신문에일너시되  
 썰마가능히쓰인리스를익일슈업는고로그인군세보우가장찾인스리스스름의청호  
 는바를허락한다호더라  
 썰마인군이인스리스스름의갓친비되미라 십일월습일에보지신문에일너시되  
 인스리스스름이썰마인군에호는바를질겨아니호여인도가르곳다란고을에즈바보  
 내여가두어짜호니일후쳐치는아즉아시못호여후쇼식을기다려괴록호려호노라<sup>24)</sup>

이 인용문의 문장들은 모두 해라체의 종결어미 ‘-라’로 마무리되고 있는 바, 종결어미 뒤의 낱말을 모두 띄어 썼다. 이는 명백한 문장 띄어쓰기에 해당한다.

『한성주보』 기사에서는 낱말 띄어쓰기를 한 사례도 없지 않다. 제5호에 수록된 한글체 기사 「썰마 왕이 인도 로잡퍼가미라」의 경우는 제목에서부터 낱말 띄어쓰기를 시도한다. 이 기사에서는 본문 속에서 특히 ‘썰마 왕’과 ‘인도 로’를 구별해서 계속 띄어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국 자림신문를본즉 썰마 왕의 일홈은 지모 라호니 인스리스 스람의스로잡핀비되여 인스리스비를타고 인도 로향홀식”(6~7면),<sup>25)</sup> “인도마리아 라호는항구에이르니”(7면), “썰마 왕을호송호여 인도 로보넉고”(7면). 이렇게 특정한 단어를 반복해서 띄어 쓰는 현상은 제6호 수록된 기사 「아덴 빅성이작난홈이라」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낱말 ‘아덴’이 등장하는 경우 의식적으로 모두 띄어 쓴다. 그 결과 “병선에서급히 아덴 짜에잇는 호르란도 관원의계”(5면)와 같은 형태의 띄어쓰기 문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나라 이름과 땅 이름 등의 고유명사에 이어서 나오는 조사는 일관되게 띄어 쓴다. 특정 기사에서 이를 일정하게 준수했다는 것은 『한성주보』의 띄어쓰기가 우연히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편집진의 의식적 행위의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제6호 소재 한글 기사 「아흐리가디락」의 경우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례를 확인할

24) 「르메리가싸와리아와서로합호미라」, 『한성주보』, 1886.2.1.

25) 여기에 표시한 면수는 신문 원본의 지면 숫자이다.

수 있다.

예시아 의버금이되나/ 아다란짓그 와 인쑤 두바다의/ 이른바 희망봉 이라/  
예시아 로부터/ 일흠을 희망봉 이라흐더니/ 서흥히 예통헝하기로/ 게브고토니  
라흐더라/ 모삼쎄그 와 삼쑤쎄 과 쇼마리 와 칼스라스와아비시니아 가되고그  
버금은 느껴야 일러라/ 녀왕이 흐린스 로부터/ 썰썰 과 모린스 와 고로모 라흐  
고/ 아소리 와 마데라 와 뽀도헤레나 와 앓센쑤 이란모든섬이/ 뽀쎄시 라흐는  
하쑤는 게부고로니 와 모삼쎄그 의사이에잇스니<sup>26)</sup>

고유명사와 조사의 분리 표기는 현대식 맞춤법과는 어긋나지만, 외국의 나라 이름  
과 땅 이름 등의 고유명사를 다른 낱말과 구별해 적으려는 의식적 판단에 근거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크게 보면 실사와 허사를 구별해 적으려는 시도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한문 문장에서 권점을 찍어 고유명사를 구별해 주던  
관습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이후 발간된 『독립신문』 등에서는 고유명사에 대한  
구별이 밑줄을 긋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 『한성주보』가 시도한 다양한 형태  
의 빈칸 띄어쓰기는 국어학계에서조차 전혀 거론된 바 없지만 근대 국어 연구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 IV.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의 소멸

『한성주보』가 어렵게 도입한 한글 기사의 게재를 갑자기 포기하고 『한성순보』와  
같은 순한문체 신문으로 회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선 『한성주보』가  
관청을 중심으로 배포되는 신문이었고, 대부분의 독자가 한문 향유층이었다는 점에  
서 찾을 수 있다. 이른바 보수적 독자층의 요구 혹은 저항에 따른 순응의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한성주보』가 한글의 사용을 포기하고 순한문체 신문으로 변화하는  
데에는, 이러한 외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모두  
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

26) 『한성주보』 제6호, 1886.3.8. 발췌인용.

『한성주보』가 한글 기사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신문이 한글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성주보』는 과감히 한글 기사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한글 문체에 맞는 기사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데 실패했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들은 주로 외보 및 집록란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외보란에 수록된 기사들은 대부분 외국 신문 및 잡지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게재한 것이다. 기사의 출처를 밝히는 다음의 구절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십월이일일본록아도신보에기직흔비라(제1호, 13면)”, “십일월습일에보지신문일너시되”(제2호, 8면), “十一月六日日本報知新聞에기록흔비라”(제2호, 10면), “십일월십이일일본사스신보에일너시되”(제2호, 10면), “이논일본통계잡지에기록흔비라(제2호, 11면)”, “근일신문의일넛스되”(제4호, 6면), “이논상히그리레르신문의이르미라”(제4호, 6면), “이논다일본시사신보의일으미라”(제4호, 8면), “이제 중국 자림신문를본즉”(제5호, 6면), “수논녹아도신문에기록흔비라(제5호, 9면)”, “이논일본신문에잇논말이라(제22호, 8면)”, “이논사월십오일딴통신에잇논말이라(제23호, 7면)”, “일본신보에일으되(제24호, 12면)”, “상히신보에운흐되”(제31호, 6면) 등. 기사의 출처를 ‘일본록아도신보, 일본보지신문, 일본사스신보, 일본통계잡지, 상히그리레르신문, 일본시사신보, 중국자림신문, 딴통신, 일본신보, 상히신보’ 등으로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외보란에 수록된 세계사 관련 한글체 기사들은 국한문체 기사와 동일한 지면에 서로 번갈아 게재되었다. 즉 한 장의 일본 신문 기사를 국한문체와 한글체로 번갈아 번역 게재했던 것이다. 왜 어떤 기사는 국한문체로 번역하고 또 어떤 기사는 한글체로 번역했는지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sup>27)</sup> 『한성주보』는 『한성순보』의 지면 구성을 대부분 이어받았고, 거기에 표기 문자만을 다양화시켰다. 『한성주보』는 『한성순보』에 게재되었던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문체만 바꾸어 재수록하기도 했다. 『한성주보』는

27) 참고로 다음과 같은 지적도 있다. “이 신문에 사용된 순국문체는 주로 세계사나 만국지지, 외보 번역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의 어문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식인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분 질서에 따라 어문 사용 양상이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달리 말해 훈민정음(언문)은 중인 이하의 계층에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아울러 실용적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양반 상류층의 학문이나 논설은 한문을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음을 의미한다.” 허재영, 「근대계몽기의 어문정책(1)-개화기 『한성순보(주보)』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4, 한민족문화학회, 2004, 65면.

창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녹주총론」을 한글로 연재한다. 한글 기사 「녹주총론」은 『한성순보』의 창간특집 기획 기사였던 「地球圖解」와 「地球論」을 윤색 번역한 것이다. 결국 『한성주보』 소재 한글 기사의 상당수는 『한성순보』의 순한문 기사를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문체만 바꾸어 수록한 셈이다. 『한성순보』의 「지구론」과 『한성주보』의 「녹주총론」이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을 지닌 유사한 내용의 기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한성주보』가 공들여 연재했던 「녹주총론」은 특별히 한글체로 바꾸어 써야 할 이유가 있는 기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녹주총론」에서 한글로 번역 표기된 외래 지명들은 이 신문의 주된 독자층이라 할 수 있는 한문 향유층들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한성주보」 제2호 외보란에 수록된 순한글 기사 「르메리가싸와리아와서로 홉 호미라」는 내용의 일부가 국한문체로 다시 보완 설명되고 있다. 『한성주보』 제2호에는 국한문 혼용체로 쓰인 「녹주총론 부록」 난이 있는데, 이는 제1호부터 연재된 한글 기사 「녹주총론」<sup>28)</sup>의 내용을 추가 해설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르메리는羅馬里이요 싸와리는佰布里이요 도르기는土耳其요 유로부는歐羅巴요 아흐리가는亞非利加요 세르의는 塞爾維요 켈마는緬甸이요”<sup>29)</sup> 등이다. 제3호 이후에는 부록 난을 따로 두지 않고 한글체 기사 뒤에 바로 다음과 같이 국한문체 해설 기사를 덧붙였다.

이디락중에잇는 예시아의나라일홈을한문으로번역호면중국은中國이요일본은 日本이요새썸리야는 西比利亞요안남은安南이요샤므는暹羅요켄마는緬甸이요인도는印度요아썸까니스단은亞葉加尼斯坦이요썸르치스단은皮路直斯坦이요베르샤는波斯이요아라썸야는亞拉比亞요예아도르기는亞細亞土耳其요들기스단은土耳其斯坦이요썸호 일홈이잇스니中央亞細亞요썸이이락중에잇는유부나라일홈을한문으로번역호여보면보르썸은葡萄牙요로시아는俄羅斯요인쓰리스는英吉利요호란스는法蘭西요도르기는土耳其이라<sup>30)</sup>

제5호에 수록된 한글 기사 「유로부디약」에서도 “이를보고미승 호 거시잇거던한문

28) 호수에 따라 ‘녹주총론’, ‘녹주총론’ 등 여러 가지로 표기했다.

29) 『한성주보』 제2호, 1886.2.1.

30) 『한성주보』 제3호, 1886.2.15. 이러한 형식의 국한문체 기사는 『한성주보』 제4호, 1886.2.22일자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으로번역흔나라일홈을보리로다”라는 구절 뒤에 한자로 나라 이름을 다시 적고 있다. 제6호 수록된 한글 기사 「아흐리가디락」에서도 “이상각국일홈을한문으로번역흐면”이라는 구절 뒤에 동일한 시도를 한다. 제22호의 한글 기사 「스베인사툼다르미아가 아다란짓그를차진속고」에서는 “디명과슈명과산명과인명을한문으로번역흐면”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순한글 기사 뒤에 다시 한자를 추가해 별도의 해설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창간호 이후 한글체 기사를 최소 두 편 이상 게재하던 관행과 달리, 『한성주보』는 제24호부터 한글체 기사를 점차 줄여가기 시작한다. 제24호 소재 한글체 기사는 한자 표기를 혼용하는 예외적 시도를 한다. 순한글로 써나가던 기사에 한자 표기를 추가하기 시작한 것은 한글만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독자에게 바르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한성주보』에서는 더 이상 순한글체 기사가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진다.

## V. 마무리: 한계와 의미

『한성주보』에서 한글은 타인을 위한 번역의 도구일 뿐, 글 쓰는 이 자신을 위한 의사 표현의 도구가 아니었다.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에는 글 쓰는 이의 감정이 거의 담겨있지 않다. 『독립신문』이나 『제국신문』 등 여타 근대 초기 신문의 한글 문장에서 볼 수 있는 의문이나 감탄 혹은 청유 등의 어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는 외국어 설명 문장의 번역에 주로 활용이 되었다. 『한성주보』의 독자는 그 전신이었던 순한문 신문 『한성순보』의 독자와 큰 차이가 없다. 그 점에서 보면, 『한성주보』의 독자들은 한문 기사의 한글 번역을 필요로 하는 독자들이 아니었다. 『한성주보』의 외보 및 집록란에 수록된 한글 기사의 원전은 대부분 일본과 중국의 근대 매체에 수록된 것들이었다. 『한성주보』의 외보에서는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신문 기사들도 인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제 기사는 일본과 중국 신문의 재인용이었다.<sup>31)</sup> 이들 기사 중 일부가 이미 『한성순보』에 순한문으로 실려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하면, 『한성주보』

의 한글 기사들은 일본어와 중국어가 먼저 한문으로 번역된 후 다시 한글로 표기되는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성주보』에서 한문 기사를 한글로 재번역해 전달하는 일은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측면마저 없지 않았다. 그 결과 『한성주보』에서는 한글이 더 이상 설 자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한성주보』에서 한글 기사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용도가 불분명했다는 점에 있다. 『한성주보』의 편집진은 한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지니지 못한 채 한글체 기사를 도입했고, 한글체 기사는 효율적인 표현 영역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가 시도한 빈칸 띄어쓰기는 근대 국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선구적 의미에 비하면 실질적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 문장 표기에서 띄어쓰기가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의사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화·규칙화되지 않은 『한성주보』 한글체 기사의 띄어쓰기는 이러한 효과를 크게 거두기 어려웠다.<sup>32)</sup>

하지만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는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사실은, 이를 통해 당시대 지식인들이 최초로 공적 영역에서 한글을 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식인을 위한 최초의 국한문 표기 저술 『서유견문』이 간행된 것이 1895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보다 약 10년이나 앞서 등장한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는 그 존재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성주보』의 한글 사용은 ‘오랫동안 억눌렸던 일반 대중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새삼스럽게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sup>33)</sup> 『한성주보』

3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지적 참조. “旬報와 周報는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을 보고 외국기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외국어신문들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된 기사들도 대부분 중국어나 일본에서 발간된 신문이 인용한 것을 간접인용하면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기사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해제: 최초의 근대 신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한성순보, 한성주보 번역판』,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3, 7면 참조.

32) 『한성주보』 한글체 기사의 구절 및 문장 띄어쓰기는, 한문 문장을 읽을 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는 방식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한문 사용 관습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33) 다음의 지적 참조. “이로써 종래의 특수 상층계급만의 漢字로부터 해방되어 일반 대중도 민족 고유의 알기 쉬운 한글로서 學問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것뿐이 아니라 정치상의 의사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고 또 하나의 思想을 갖게 되었다. 新聞에 한글 사용이야말로 오랫동안 억눌렸던 일반 대중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새삼스럽게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의 한글체 기사는, 근대 초기 개화파의 국한문혼용체 신문 발행의 소망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대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가 원래 국한문혼용체 신문으로 기획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준비하던 박영효와 유길준 등이 갑자기 물러난 후 統理衙門博文局이 간행 주체가 되면서 『한성순보』는 순한문체 신문으로 발행되었다.<sup>34)</sup>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는 개화기 국어의 표기변천사를 연구하기 위한 일차 자료로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독립신문』 등 근대초기 신문 기사에서 발견되는 한글 표기 특징 가운데 상당수는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에서도 거의 그대로 확인된다.<sup>35)</sup> 『한성주보』에서 시도되었던 한글 문장의 띄어쓰기는 『독립신문』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정착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대 지식인의 한글 사용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점차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된다. 개인적·사회적으로 한글 사용의 영역이 확장되고 표현 기능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자인 작가 중심에서 수용자인 독자 중심으로 문체 전환이 일어나면서 한국 근대문학사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매체 가운데 하나가 『독립신문』이다. 『독립신문』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간된 여타 근대 신문들의 경우, 문체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지난날의 言論이 주로 상층계급인 兩班과 中人들 사이에만 행해졌던 것을 이로부터는 일반 대중, 특히 서민층에서도 일어나게 할 素地를 충분히 마련하였다.” 최준, 『新補版 韓國新聞史』, 일조각, 1990, 27~28면.

34) 『한성순보』가 원래 국한문 신문으로 기획되었다는 사실은, 유길준이 미리 써두었던 것으로 알려진 다음의 창간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今夫新聞紙라稱호는者는文明諸國에盛行호야其功效을不遑枚舉로되其大概을論辨호는則殆無涯際(호)나그러호나其要領은一國人民의智見을擴大호는데(不)過(치아니)호(는)나大則一國政의(万国政治)事理로부터小則一身一家의修齊에이르히日新又新호야其卑陋호習俗을脫호여開明호化運에 向호야弊害을除호고正理에歸호며不便을捨호고有盜(益)에就호야其國의文明(化)을增進호게호는데不出호는니何爲其然고新聞紙는内外國(의)政(治)事項을細大傭事記載論辨호고民間事情을遠近傭事搜聞傳播호는故로勸善懲惡호는道가(自然)流行호며또人民이恒常政治得失을辨知호야其弊害除祛事を希望호며政府도또는時勢의變遷과民心의向背을觀察호야其政治을適宜호게改良호는事을得호며” 국사편찬위원회 편, 『俞古濬全書』 4, 1971, 7면. 이 원고에는 누군가 가필을 한 흔적이 있다. 가필은 誤字를 바로 잡거나, 독자가 문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논의는 김영민,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1999, 143~144면 참조.

35) 『독립신문』의 한글 표기와 맞춤법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응호,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청사, 1975, 235~237면 참조. 개화기 국어의 일반적 특질에 대한 정리는 정승철 외,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999 참조.

요소는 독자 집단의 성격이다. 『제국신문』이 한글을 기본 문체로 선택하고, 『황성신문』이 국한문을 기본 문체로 선택하면서 두 신문이 시장을 분할 지배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때 『제국신문』은 일반 대중을, 『황성신문』은 이른바 식자층을 자신들의 주된 독자층으로 삼았다. 이들 신문은 기본 문체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기사의 영역과 기사 서술 태도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한성주보』의 한글체 기사 정착 실패의 경험은 근대 매체의 문체 선택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독자층의 성격이라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아울러, 문체에 맞는 기사 영역의 개척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일깨워 주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성주보』에서의 한글체 기사의 정착 실패 경험은 이후 발간된 근대 신문의 문체 선택 과정에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작용했다. 『한성주보』 이후 『독립신문』에서 한글체 기사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갔는가를 살피는 일은 이 논문의 후속 과제가 될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에서 국한문체와 국문체의 역할 차이를 밝히는 일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근대문학사의 전개와 근대지의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문체가 활용되는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병문, 『언어적 근대의 기획-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2013
- 김성란, 『근대국어의 종결어미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6
- 김영민, 『20세기 한국문학의 반성과 쟁점』, 『한국문학사의 근대와 근대성』, 소명출판, 1999
- \_\_\_\_\_,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12
- 미쓰이 다카시, 『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조선어 규범의 문제화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 민현식, 『국어정서법 연구』, 태학사, 2004
- 송철의 외,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안예리, 『근대 한국어의 변이와 변화』, 소명출판, 2019
- 이병근 외,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이용호,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청사, 1975
- 임상석, 『식민지 한자권과 한국의 문자 교체-국한문 독본과 총독부 조선어급한문독본 비교 연구』, 소명출판, 2018
- 임형택 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정승철 외,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999
- 정진석, 「해제: 최초의 근대 신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한성순보, 한성주보 번역판』,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3
- \_\_\_\_\_, 『한국언론사』, 나남, 1992
- 차배근 외, 『우리신문 100년』, 현암사, 2001
- 최경봉,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2016
- 최준, 『신보판 한국신문사』, 일조각, 1990
- 한기형 외, 『근대어 · 근대매체 · 근대문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 김양진, 「띄어쓰기의 성립과 어절의 개념」, 『국어국문학』 171, 국어국문학회, 2015
- 양명희, 「띄어쓰기 변천을 통해 본 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013
- 우인혜, 「『독립신문』의 표기법 연구-종성표기를 중심으로」, 『한양어문』 3, 한양어문학회, 1985
-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한국문화연구소, 1984
- 허재영, 「근대계몽기의 어문정책(1)-개화기 『한성순보(주보)』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4, 한민족문화학회, 2004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angul Articles in *Hansungjubo*

Kim, Young-min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features, limitations, and meaning of the Hangul articles published in the *Hansungjubo*. I also studied why the Hangul article suddenly disappeared without being used for a long time. This newspaper was founded in 1886 and was published until 1888. This newspaper was the first to include a Hangul article among the media published in early modern times in Korea. In this paper, I investigated the specific use of Hangul in the Korean language articles. Most of the Hangul articles published in the *Hansungjubo* were translations of foreign materials. The Hangul article of *Hansungjubo* was mainly used for translating foreign language sentences that convey facts.

In *Hansungjubo*, Hangul was a translation tool for others and not a tool of expression for writer himself. The Japanese and Chinese articles were first translated into Hanmoon, and this was translated into Hangul again. The biggest reason for the sudden disappearance of Hangul articles in *Hansungjubo* is because its usage is unclear. The readers of the newspaper did not want to translate Hanmoon texts. The translation sometimes made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original text. However, the Hangul article of *Hansungjubo* is meaningful in several respects despite its failure. One of the most remarkable facts is that intellectuals first encountered Hangul in the public domain. The failure experience of Hangul in *Hansungjubo* has taught us that the character of the reader is important in the choice of literary style. He also taught me that we need to develop the area of articles appropriate to style. This experience has become an important lesson in the choice of style in other modern newspapers published later.

**Key Words** : *Hansungjubo*, modern newspapers, Hangul Articles, literary style, translation, word spacing

